

제 1 교 시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권
말

[1 ~ 3] 다음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볼 ○○○이라고 합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내용 - 기상 전, 스마트폰 화면에 교통사고로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막힌다는 뉴스 알림이 표시된다. 스마트폰 알림이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울리면서 자는 회사를 깨우기 위해 집 안의 전등이 일제히 켜지고, 각종 조리 기구가 때맞춰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한다. 식사를 마친 회원이 집을 나서며 문을 잠그자, 집 안의 모든 기기가 스스로 꺼진다.]

자,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 (학생들의 소감을 들은 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라는 반응이 많군요. 이미 일부분은 실현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물인터넷은 각종 기기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물론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시대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물인터넷의 시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사람의 도움 없이 기기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름을 물어보듯, 기기도 서로 정보를 나누려면 상대 기기의 아이디나 IP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블루투스나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콘* 등이 이들의 소통을 돕는 기술이 됩니다. 기기끼리 통성명을 한 후에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화제로 삼아 기기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통해 주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 자, 이 정도면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세요.

(질의응답 후) 사물인터넷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2009년 당시 9억 개 정도로 집계되었던 사물인터넷 기기의 개수는 2020년이 되면 370억 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한 회사에서는 거의 모든 부품이 인터넷과 연결된 신형차를 내놓았습니다. 이 차는 에어백이 터지면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센터에 연결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그 동안 발생했던 수천만 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지요. 범퍼는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과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해당 지역 도로와 날씨는 어떤지, 사고가 날 만한 특이 사항은 없었는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사고라고 판단되면 근처 고객센터와 병원에 즉시 사고 수습 차량과 구급차를 보내라는 명령을 전송하고, 보험사에도 자동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사용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관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콘(beacon) :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는 장치.

1. 위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논의를 본격화해야겠군.
- ② 사물인터넷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를 제시하면 좋겠어.
- ③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반 기술의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 ④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장 전망이 밝다는 점을 수치를 통해 강조해야겠어.
- ⑤ 해외와 대비하여 국내의 사물인터넷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군.

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대중 화법이란 대중적 말하기와 듣기의 화법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강연 등을 하고 이를 청중이 듣는 상황과 관련된 화법을 가리킨다. 화자가 청중을 상대로 혼자서 이야기하고 청중이 그것을 듣기 때문에 대중 화법은 일방적인 성격을 띠지만, 실제 상황에서 화자는 청중을 고려한 말하기를 통해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중과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게 된다.

- ① ㉠ : ‘여러분과 함께 ~ 알아볼’과 같은 표현을 통해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 ② ㉡ : 청중의 말에 주목하고 그에 반응함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현재와 대조되는 미래의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 :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 ⑤ ㉤ : 질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중의 의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3. <보기>는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이다. 강연과 관련지어 학생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오늘 사물인터넷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주제였지만, 영화와 같은 도입부의 동영상을 본 후 흥미를 느끼고 강연에 집중하게 되었다. 다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서 조금 낯설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궁금함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연이 끝난 후 학교 도서관에 들러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몰랐던 용어의 의미는 물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사물인터넷이라면 인터넷이 되는 기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내게 이번 강연은 그 이상의 지식을 알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① 강연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의 이해를 위해 주위의 조언을 구하고 있군.
- ② 강연을 듣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군.
- ③ 강연에서 시청각 매체 자료가 활용된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강연으로 인한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 ⑤ 강연 내용의 현실적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4 ~ 5] 다음은 도서부원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국 :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3학년 부원들의 생각을 모으라고 하시네. 선생님께서 도서부 의견서를 제출하실 건가 봐.

유준 : 지난 번 그 얘기구나. 나는 찬성!

철호 :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 나는 반대! 다수결이니까, 반장 마음대로 해.

인국 : 이 친구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서로 말해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지. 내 표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 (철호의 책을 접으며) 두 분께서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철호 : 우리 학교 학생들만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구? 우리 능력이 그 정도가 돼?

유준 :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면 관리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행복동 주민이잖아. 졸업하면 책 빌려볼 데가 없어서 아쉬울 텐데, 안 그래?

철호 :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따로 지어야지. 학교 개방했다가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찌려고 그래? 꼬맹이들도 몰려올 거 아냐?

유준 : ㉢ 그래, 철호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꼬마들이 학교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봐. 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을 것 같아.

철호 : 그 난장판 가운데 공부가 잘도 되겠다!

인국 : 너희들 말을 들어 보니,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구나. (노트를 꺼내 적는다.) 일단 주민들과 공동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할 거고.....

유준 : 우리 학교 안에서 책 빌려가는 거야 지금 도서실 컴퓨터로도 되지만,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면 컴퓨터가 몇 대 더 필요하겠어. (인국의 노트를 건네받아 적는다.)

철호 : 그게 한두 푼 드는 일이나?

인국 : 물론 그렇겠지..... 음, 이 정도면 우리 도서부 의견이 정리된 거 같아. 찬성으로 말이야.

철호 : ㉣ (놀란 표정으로 인국을 바라보며) 뭐야, 너도 그럼 찬성이야?

인국 : 유준이한테 설득당한 거지.

철호 : 예잇, 그럼 나도. (노트를 당겨와 적으며) 학교 도서관이니까, 학생들이 이용 우선권을 가져야 해. 이걸 분명히 해야 해.

유준 : 응? ㉤ (철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철호 :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야. 내가 귀찮은 건 좀 싫어해도, 마음은 열려 있거든.

인국 : 고맙다. 너희들은 최고의 친구야. 이렇게 ㉥ 의견서를 제출할게.

4. 위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단호한 의사 표현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 : 말투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 ③ ㉢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개진하고 있다.
- ④ ㉣ :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⑤ ㉣ :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5. <보기>는 ㉣를 구체화한 것이다. 도서부원들의 대화로 보아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의견서

도서부 3학년 김철호, 민유준, 우인국

저희 도서부 3학년들은 행복동 주민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는 도서관 개방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학교 도서관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학교에 들어오는 주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
 - 2)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 ㉡
2. 도서관 공동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주민 대표와 도서관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모색 ㉢
 - 2) 도서 대출 관리 컴퓨터 추가 확보 ㉣
 - 3) 재학생 이용 우선권 부여 ㉤

저희들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6 ~ 8] (가)는 학생회의 회의 내용이고, (나)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은 : 어제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2학기부터 학생회 주관으로 신청자를 받아 아침 운동을 실시하려고 해. 학교 누리집에 이 내용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현민 : ㉠ 선거에서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려 주자. 1학기부터 운영했던 아침 식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거지. ㉡ 더불어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침 식당 운영의 성과를 알려 주면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

지은 :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학기에 할 아침 운동을 안내하자. ㉢ 학교 여건부터 이야기하면 어떨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여러 운동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많은 학생이 동시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잖아.

재준 : 맞아. ㉣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원하는 종목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아침 운동에 참여할 것 같아.

현민 : 아침 운동이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어. ㉤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의 시작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상쾌할 수 있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참여를 유도하자.

유은 : 모두 좋은 생각이야. 그럼 너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누리집에 글을 올릴게. 그리고 재준아, 너는 ㉠ 홍보 문구를 작성해서 학교 게시판에 부착해 줘.

(나)

△△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메뉴는 계란, 사과, 샐러드 등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단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당’을 이용한 학생은 전체 학생 중 47%가 넘었으며, 만족도도 83% 가까이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에 진행한 아침 식당과 더불어 ‘아침 운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에 테니스 코트 2개와 축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고, 실내 체육관에는 탁구대, 농구대, 배드민턴 네트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학생이 동시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허둥지둥 뛰어서 지각을 겨우 면하는 피곤한 아침에서 벗어나세요. 30분 일찍 여유롭게 등교해서 운동으로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시작이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7. <조건>에 따라 ㉔를 만들어 보았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나)의 연구 결과에 나오는 운동의 장점을 모두 포함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할 것.

- ① 친구와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려 보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이 여러분의 체력을 키워 주는 보약입니다.
- ② 친구와 함께 호흡하며 운동을 해 보세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우정이 비타민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활력 넘치게 할 것입니다.
- ③ 늘 작심삼일에 그치던 다짐도 친구와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친구와의 우정이 도타워질수록 여러분의 몸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 ④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남보다 일찍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운동으로 잠이 깬 뇌가 여러분의 학업 능력을 올려줄 것입니다.
- 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운동을 친구와 시작하세요. 운동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생활을 더 기운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 <보기>는 아침 운동에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㉑~㉔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지난 5월의 내 모습은 '5'와 관련이 깊었다. 늘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다섯 개씩 맞춰 두었지만,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학교에 ㉑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기말 성적표에 나온 출석 상황의 지각 횟수를 보면서 2학기에는 지각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하였다.

2학기가 되어 학생회에서 하는 아침 운동으로 달리기를 함께 하자고 친구가 제안했다. 지금도 피곤해서 겨우 일어나는데 30분이나 일찍 학교에 오는 것이 ㉒ 바람직할까 걱정되었다. ㉓ 그런데 학교에 30분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늦어도 지각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운동을하기로 약속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힘이 들었다. 내 부탁으로 아침마다 깨워 주시는 어머니께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다. 또 어머니께서 깨우시다 포기하셔서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하였다. ㉔ 고등학생이 되니 사소한 일에도 특하면 짜증을 내어 며칠 전에는 친구랑 크게 다투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달라지고 ㉕ 있음이 느낄 수 있었다. 아침 바람이 시원해지면서 운동장을 달리는 몸이 점차 가벼워졌고, 1교시 수업도 오히려 집중이 잘 되었다. 요즘 나는 '30'과 관련이 깊다. 30분 일찍 학교에 와서 매일 30분 운동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30분 줄였다. 앞으로도 나의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다.

- ① ㉑ : 의미가 중복되므로 '늦게'를 삭제한다.
- ② ㉒ : 문맥으로 보아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가능할까'로 수정한다.
- ③ ㉓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더욱이'로 수정한다.
- ④ ㉔ :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므로 문장을 삭제한다.
- ⑤ ㉕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부적절하므로 '있음을'로 수정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부여 과제 :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주제로 논설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후배들

※ 학생의 글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타인의 글을 따오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깐', '남들도 다 하니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추호의 죄책감도 없이 표절을 한다. 가일층 심각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표절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표절 행위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표절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연한 실수이든 의도적 행위이든 간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표절 방지를 위한 작지만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무슨 거창한 운동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선 표절 방지 캠페인을 펼쳐 표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어 보자. 표절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절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을 알려 주고, 다른 사람의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과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게 될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반론을 펼친다.
- ② 가설을 설정한 후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 ③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한다.
- ④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⑤ 자신의 체험을 일반화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10. <보기>는 ‘학생의 글’을 검토한 선생님의 의견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다듬기 위해 세운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글 쓰느라고 고생 많았어.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먼저, 이 글의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두 부분에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결말 부분에 주요 내용을 요약한 후 독자의 동참을 촉구해 봐. 또한, 표절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추가해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해. 끝으로, 예상 독자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해.

- ① ‘추호’, ‘가일층’, ‘무관용’ 같은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자.
- ② ‘표절 방지 운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와 같은 제목을 붙이자.
- ③ 서두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표적인 표절 사건을 언급하자.
- ④ 인터넷 보급률과 표절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추가하자.
- ⑤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자.

11.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 ③ ‘밝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 ④ ‘닫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12. <보기 1>의 ㉠~㉣에 대한 <보기 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 < 보 기 1 > —

- 나는 눈을 감은 ㉠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 채를 선물로 보냈다.
- 어머니께서는 ㉢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 그녀는 항상 당근은 ㉣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 < 보기 2 > —

- a. ㉠, ㉡, ㉢은 체언이다.
 b.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c. ㉠,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다.

- ① ㉠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② ㉡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③ 문장을 분석하면 홑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
 ④ ㉢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의 주어는 ‘그에게는’이다.

14.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성 수 :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버지 : ㉠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성 수 : 죄송해요, 아버지. 축제 관련 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늦게까지 ㉡ 붙잡혔어요.
 아버지 : 오늘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니?
 성 수 : ㉢ 아차! 바쁘게 나간다고 깜빡 잊었어요.
 아버지 : 그럼 중간에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성 수 : 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 못 했어요.
 아버지 : ㉤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방에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라.
 성 수 : 예, 알겠습니다.

- ①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려),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 ①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②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③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⑤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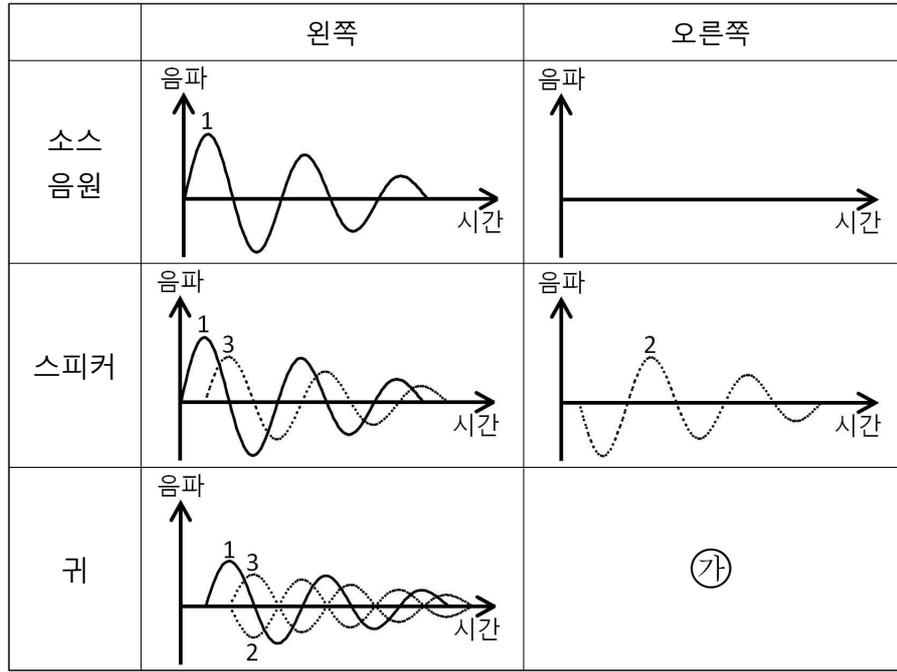
사람은 두 귀로 3차원 공간 상에서 음원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이는 음이 두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ITD)와 두 귀에서 느끼는 음의 세기차(ILD) 때문이다. 이를 바이노럴(binaural) 효과라 하며, 이 효과를 반영하면 음원의 위치를 3차원 공간 상의 어느 곳이나 위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입체 음향 기술이라고 한다.

입체음향용 음원을 제작할 때는 주로 ‘더미 헤드(dummy head)’를 사용한다. 사람 머리 모양인 더미 헤드 양옆의 모조 귀 안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음원을 녹음하면, 제작자가 3차원 공간 상에 임의로 위치시킬 수 있는 음원이 녹음된다. 이를 바이노럴 음원이라고 한다. 바이노럴 음원 제작 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양 귀를 잇는 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축의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각도와 거리를 갖는 위치들의 경우 ITD와 ILD가 같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더미 헤드는 머리 크기나 귓바퀴의 모양 등 청각과 관련된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이 음원을 청취할 때 음원 위치 지각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바이노럴 음원을 헤드폰으로 청취할 경우 청취자는 별도의 신호 처리 과정 없이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노럴 음원은 헤드폰을 기준으로 음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폰이 움직이면, 즉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면 음원의 방향도 함께 움직이는 단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동일한 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정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청취할 경우 입체감은 현저하게 감소된다. 닫힌 공간 구조를 가진 헤드폰과 달리 열린 공간 구조를 갖는 스피커 청취 환경으로 인해, 한쪽 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출력된 소리가 청자의 반대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원치 않는 소리가 반대편 귀로 들어가는 현상을 ‘크로스토크(crosstalk)’라고 한다. 크로스토크는 스피커를 이용한 입체 음향 기술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자연 세계에서 크로스토크로 인한 간섭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한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크로스토크 제거 원리를 도식화한 <표>는 소스 음원이 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스피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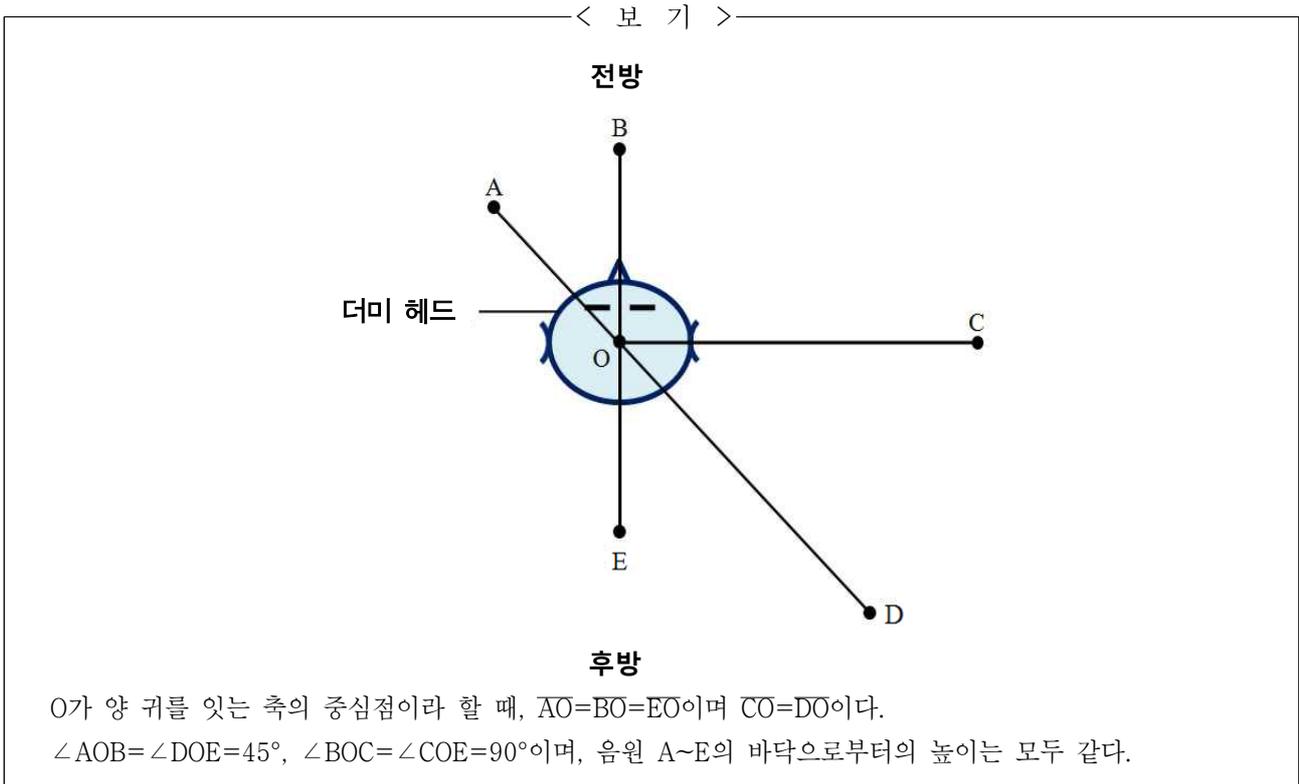
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 차가 존재하며, 스피커로 출력된 1, 2, 3은 크로스토크 제거 필터를 통해 처리된 것이다. 이때 청자가 듣는 음원은 소스 음원과 같아야 한다. 즉, 왼쪽 귀에는 1만 들리고, 오른쪽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왼쪽 스피커에서는 1, 3을 재생하고,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2를 재생한다. 그렇게 되면 3이 2와 상쇄돼서 왼쪽 귀에는 1이 남게 되고, 오른쪽 귀에는 1과 2가 상쇄돼서 3만이 남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왼쪽 귀에는 1만 들리게 하고 오른쪽 귀에는 3이 매우 작게 들리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표>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이 3차원 공간 상에서 음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이노럴 효과 때문이다.
- ② 더미 헤드를 이용하면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할 수 있다.
- ③ 바이노럴 음원을 스피커로 청취할 때 크로스토크로 인한 간섭 현상은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렵다.
- ④ 바이노럴 효과가 적용된 음원을 스피커로 청취할 때 헤드폰에 비해 입체감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 ⑤ 바이노럴 음원을 재생할 때 헤드폰을 낀 청취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음원이 들리는 방향이 달라진다.

17. <보기>의 A~E는 더미 헤드를 사용하여 녹음한 음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 중 청취자가 헤드폰으로 청취할 때 음의 위치 판단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A와 B
- ② A와 D
- ③ B와 E
- ④ C와 E
- ⑤ D와 E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상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0.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2.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되었지만 개념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구별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生來的),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말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 권리가 헌법에 수용된 것도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된다고 생각되는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환경권 등도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이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작위(作爲)나 부작위(不作爲)*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 질서를 형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대하여서는 자연권설, 실정권설, 통합가치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자연권설(自然權說)에서는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은 시대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고, 국가 권력의 침해와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기본권 존중이라는 근본 규범에는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전(前) 국가적, 초(超)국가적인 천부적 자연권이라고 본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그 헌법의 규정이 기본권을 창설(創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문서로 확인, 선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정권설(實定權說)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실정권으로 파악한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도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주장된 것이지만, 사회는 공동 생활체이므로 개인의 자유는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가 영역 안에서는 그 최후의 조정자가 국가인 이상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 제한, 조정은 필요 불가결하므로, 결국 자유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권도,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헌법 또는 법률이 국가의 실정법인 이상 그것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정법상의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정권설에 의하면 기본권도 헌법에 규정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기본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합가치설(統合價値說)에서는 질서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바라본다. 현실의 인간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내의 자유와 권리를 뜻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에서 기본권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사회 공동체가 동화되고 통합되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① 원동력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헌법 질서 내의 국가 권력은 국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서 창설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통제되고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과 동화적(同化的) 통합 기능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을 중시한다.

* 작위, 부작위 : '작위'는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나 동작이고,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

23. 밑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② 기본권은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므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작위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연권설에서는 기본권이 자연권으로서 가지는 방어적, 저항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정권설에서는 자유권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 이해한다.
- ⑤ 통합가치설에서는 기본권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24.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헌법 조문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자연권설에 의하면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이 가지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확인, 선언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②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과,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자연권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실정권설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제10조’에 대해 통합가치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 지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동화적 통합 질서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 ⑤ 통합가치설은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적 질서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유와 권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25.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자연권설의 입장은 다시 절대적 자연권설과 상대적 자연권설로 나뉜다. 상대적 자연권설을 취하는 법이론가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 전자는 후자와 달리 실정권임을 인정한다.

- ①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이기 때문이다.
- ②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권력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④ 생존권적 기본권은 시대나 국가가 달라도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 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26. ㉠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힘
- ② 바닥
- ③ 일으킴
- ④ 본바탕
- ⑤ 움직임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자(量子)는 원자, 전자, 광자 등의 덩어리진 작은 입자를 말하며, 양자 물리학은 양자들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에 ㉠ 주목하는 학문이다. 파동의 특징 중 하나는 ‘중첩’인데, 중첩이란 기타 줄을 통겼을 때처럼 파장이 다른 여러 파가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것도 여러 개의 파들이 중첩된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어떤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는 확률로 주어지는데, 측정을 하게 되면 ‘중첩’ 상태가 깨지고 특정 값을 갖는 상태로 ‘확정’된다. 이는 측정 행위가 파동에 ㉡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중첩된 상태의 모든 값을 측정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양자 물리학의 정론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

확률을 세계의 본질로 보고 미래의 우연성을 ㉢ 용인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양자 물리학이 우주의 숨은 변수들을 모두 알게 되면 확률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에게 우주의 인과 관계는 신의 질서와도 같아서,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으로 아름답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양자 물리학이 ㉣ 전제로 삼고 있는 ‘중첩’ 상태의 깨짐과 상태의 ‘확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제출되었는데, 폰 노이만은 측정 장비들도 양자로 ㉤ 구성되어 있으므로, 측정 단계에서는 ‘중첩’ 상태의 변화가 없고, 측정 결과를 ‘인간이 인식할 때’ 비로소 ‘중첩’이 깨지고 값이 ‘확정’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슈뢰딩거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쇠로 된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성 원자, 방사선 검출기, 그리고 독약병을 넣어둔다. 양자인 방사성 원자는 한 시간에 50%의 확률로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사선이 검출되면 독약병이 깨지고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가스를 발생시키도록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고양이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폰 노이만의 해석을 따르자면, 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 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의 ‘중첩’된 상태에 있지만, 상자를 열어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두 상태 중의 하나로 ‘확정’된다. 고양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생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된 상태와 확인 행위와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 슈뢰딩거의 해석을 따르자면, 반생반사(半生半死)의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한 시간 후 고양이의 생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상자를 열어 보는 행위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한편,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을 정밀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리 작은 검출기라도 양자적인 특성을 온전히 갖기엔 거시적이다. 따라서 방사성 원자의 중첩 ‘상태’를 깨뜨리고 특정한 상태로 ‘확정’시킨 것은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닌 검출기라는 것이다. 많은 해석 중에서 이는 가장 많은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학 논쟁을 촉발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파동의 ‘중첩’ 상태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미시 세계의 원인과 거시 세계의 결과를 연결시켜 놓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수많은 학자들의 비판과 기여 속에 양자 물리학은 20세기 물리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에 들어서 보안성이 높은 양자 암호와 우수한 성능이 기대되는 양자 컴퓨터 등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기술은 점차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 사고(思考) 실험 : 실행 가능성이나 입증 가능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사고상으로만 성립하는 실험. 하나의 이론 체계 안에서의 연역 추리의 보조 수단으로 쓰임.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세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이해할 때 확률과 우연을 배제하고자 했다.
- ③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엄밀한 인과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 ④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양자의 상태를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8.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중첩된 상태를 특정한 상태로 확정하는 것은 검출기이다.
- ㉡.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 ㉢.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의 중첩 상태가 깨진다.
- ㉣. 상자를 열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와 고양이의 생사는 독립적이다.
- ㉤.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 상태의 고양이와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 사람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9.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로 수많은 고양이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② 양자 물리학은 ‘중첩’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③ 미시 세계의 원인과 거시 세계의 결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 ④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 ⑤ 실제 실험이 아닌 사고 실험이라는 점에서 고양이를 이용한 실험은 한계를 지닌다.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② ㉡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③ ㉢ : 거두어들여 사용함.
- ④ ㉣ :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 ⑤ ㉤ :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재령(新載寧)에도 나무리벌
물도 많고
땅 좋은 곳
만주(滿洲) 봉천(奉天)은 못살 곳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곡자곡이 피땀이라
고향 산천이 어디메나

황해도
신재령
나무리벌
두 몸이 김매며 살았지요

올벼 눈에 닿은 물은
출렁출렁
벼 자랐나
신재령에도
나무리벌

- 김소월, '나무리벌 노래' -

(나)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턱 움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흑 흑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
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
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 왔단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가 거 거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거북이는 배추 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 꼬리를 씹으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 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

* 띠팡 : 지방(地方)을 뜻하는 중국어.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 ⑤ 특정 종결어미를 구사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장소'로 만든다. 그에 따라 자연적 공간에는 친숙하고 안정적인 공간,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과 같은 이원적 가치가 부여된다. 인간은 또한 자아 동일성을 형성하는 장소에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를 상실하게 되면 자아는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근본적 결핍을 겪게 되고 절망과 불행의 경로를 걷는 가운데 장소의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

- ① (가)의 '나무리벌'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아 동일성을 형성시킨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의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에는 상실한 '장소'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함께 불행을 예감하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 ③ (가)의 '만주 봉천'과 (나)의 '만주'는 쫓겨 갔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 ④ (가)와 (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원적 애착을 가졌던 '장소'를 상실하고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결핍을 겪었을 것이다.
- ⑤ (가)의 '자곡자곡이 피땀이라'와 (나)의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은 친숙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잃고 살아가는 절망적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보기>에 근거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용악의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화자는 대상과 관련된 사연을 전달하거나 기록하기도 하고, 그가 직접 등장인물이 되거나 등장인물의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인물 혹은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법은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① 1연의 '(하늘이) 혼자만 곱구나'는 '거북이'의 발화로도 화자의 발화로도 볼 수 있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 왔단다'의 형식으로 '거북네'의 사연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화자는 '띠팡'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거북네'의 이동 경로를 '아베'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
- ④ 4연의 '달디달구나'는 '거북이'의 감각을 화자 자신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4연의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는 '거북이'의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는 화자의 물음으로 볼 수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가슴이 터져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창을 갖춰 내어
이 설움 답답할 제 여달아나 보고지고
- ㉡ 어화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이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라
소무의 복해 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랴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빼쳐 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밭 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 되겠구나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대 바람 한가하다
- ㉢ 원근산천에 홍일이 떠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 ㉣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 ㉤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을 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불관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3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을 열거하여 특정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창’의 속성에 기대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근경과 원경의 대조를 통해 자연의 풍광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되풀이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만언사>는 당대에 잘 알려진 상투적인 구절들을 가져와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래와 같은 텍스트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하였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언사>의 텍스트 구성 방식

- ㉠ 익숙한 표현의 제시 :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이웃집 아이들아’ 등
- ㉡ 관습적 의미를 지닌 소재 사용 : ‘백구’, ‘푸른 대’, ‘낙시’ 등
- ㉢ 대중적 고사 제시 : 소무의 복해 고생
- 북쪽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간 한나라의 소무가 억류되어 19년 동안 고생했던 일

- ① ‘소무의 복해 고생’과 같은 대중적 고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는 계절적 배경의 표현을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이는 ‘성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푸른 대’의 관습적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구체적인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범위의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은 화자의 모습은 ‘낙시’의 관습적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⑤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은 ‘백구’의 관습적 의미와 연관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반겨 웃으며 대답하되,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오니 아버지 어두우신 눈 정녕 밝아 보일 양이면 삼백 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보리다.”

“네 아무리 애를 쓴들 안빈낙도 우리 형세, 단 백 석인들 할 수 있겠느냐?”

[A] “아버지, 그 말 마오. 옛일을 생각하니 왕상(王祥)은 얼음을 두드리서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얻고 맹종(孟宗)은 대나무 앞에서 통곡하여 눈 가운데 죽순(竹筍) 나니, 그런 일을 생각하면 출천대효(出天大孝) 사친지절(事親之節)이 옛사람만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아무 걱정 마옵소서.”

심청이 부친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뒤꼍을 정히 하고 황토로 단을 쌓아 두고 좌우에 금줄을 매고 정화수 한 동이를 소반 위에 받쳐 놓고 북두칠성 호반(號盤)에 분향재배한 연후에, 두 무릎을 공손히 꿇고 두 손을 합장하여 비는 말이,

[B] “상천(上天) 일월 성신(星辰)이며, 하지(下地) 후토(后土) 성황(城隍) 사방지신(四方之神), 제천제불(諸天諸佛) 석가여래 팔금강보살 소소응감(昭昭應感)* 하옵소서. 하느님이 만드신 일월은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지라. 일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 하오리까. 소녀 아버 무자생(戊子生) 이십 후 눈이 멀어 사물을 못 보오니, 소녀 아버 허물일랑 제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 눈을 밝게 하여 천생연분 짝을 만나 오복을 갖게 주어,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를 점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 소저는 천신이 아는지라 흠향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 하루는 유모 귀덕 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하오?”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하간에 십오 세 처녀를 사겠다고 다니니 그런 미친놈들이 있소?” 심청이 속마음에 반겨 듣고,

“여보, 그 말이 진정ियो? 정말로 그리 될 양이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숙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오되, 말이 밖에 나지 않게 조용히 데려오오.”

귀덕 어미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는지라. 처음은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皇城) 사람으로서 상고(商賈)차로 배를 타고 만 리 밖에 다니더니, 배 갈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불측하여 자칫하면 몰사를 당하는데 십오 세 된 처녀를 제수(祭需)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왕하옵기로 생애가 원수로 사람 사러 다니오니, 몸을 팔 처녀가 있사오면 값을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심청이 그제야 나서며,

“나는 본존 사람으로 우리 부친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을 분별하지 못 하기로, 평생에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 하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되, 가세가 지빈(至貧)하여 주선 할 길 없삽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원하기 바라오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 세라 그 아니 적당 하오?”

① 선인이 그 말 듣고 심 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臆塞)하여 다시 불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남자 말씀 듣자오니, 가륙하고 장한 효성 비할 데 없습니다.”

이렇듯이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긴한지라,

“그리하오.”

하고 허락하더라.

“행선 날이 언제입니까?”

“내월 십오 일이 행선할 날이오니 그리 아옵소서.”

피차에 상약을 하고 그날에 선인들이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보냈더라. 심 소저는 귀덕 어미를 백 번이나 단속하여 말 못 내게 한 연후에, 집으로 들어와 부친 전에 여쭙오되,

“아버지!”

“왜 그러느냐?”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로 올렸나이다.”

심 봉사가 깜짝 놀라서,

“그게 웬 말이냐? 삼백 석이 어디 있어 몽운사로 보냈어?”

심청이 같은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일까마는 사세부득이라 잠깐 속여 여쭙는다.

[C] “일전에 무릉촌 장 승상 님 부인께서 소녀보고 말씀하기를, 수양딸 노릇하라 하되 아버지 계시기로 허락 아니하였는데, 사세부득하여 이 말씀 사되었더니 부인이 반겨 듣고 쌀 삼백 석을 주시기에 몽운사로 보내옵고 수양녀로 팔렸나이다.”

심 봉사가 물색 모르고 크게 웃으며 즐겨 한다.

“어허, 그 일 잘되었다. 언제 데려간다더냐?”

“내월 십오 일 날 데려간다 하옵니다.”

“네가 거기 가서 살더라도 나 살기 관계찮지. 어! 참으로 잘되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 소소응감(昭昭應感) : 분명히 마음에 응하여 느낌.

*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 : 오래 살고 부유하여 아들이 많음.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고 있다.
- ③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둘러싼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과거 인연이 계기가 되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8.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고사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황을 비판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② [B]는 초월자에 기대어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③ [C]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 이를 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처지가, [B]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A]와 [C]는 말하는 목적을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에 두고 있다.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수남 모에 이어 사람 좋은 함평까지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용순이 어디서 제간엔 할머니를 위한 제수랍시고 양주 한 병을 구해와 제 손수 제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용순은 그 어른들의 질책을 들은 시늉도 않은 채 그 할머니 영정 앞에 놓인 동화책을 구실 삼아 다시 준섭을 물고 늘어졌다.

“흥, 이건 또 뭐예요?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서 이런 책까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하긴 삼촌은 역시 삼촌이신데 어련하셨을라구요. 이것도 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삼촌식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제상에 양주병을 올려 드린 것처럼 말예요.”

아침 녘 이후로 장혜림과는 이미 무슨 말이 좀 오간 듯싶기도 했지만, ㉠ 용순은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까지 새겨진 동화책의 표지를 함부로 들춰 대며 심통기가 여전했다.

“하지만 삼촌, 이제 제발 좀 적당히 해 두세요. 나 삼촌한테 정말 질리고 말았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삼촌을 좀 이해하고 가까이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삼촌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삼촌이 좀 빈 데를 보여주세요. 허술하고 모자란 데를 보여 주시란 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삼촌을 이해하고 삼촌 가까이로 다가가 볼 수가 있지요? 삼촌이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용순의 그런 원정*은 물론 준섭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에 저를 질책한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 전부에 대한 포원*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은지네가 보다 못해 멍청히 앉아 있기만 한 준섭을 대신하여 모처럼 매섭게 녀를 꾸짖고 나섰다.

“용순이 너 보다보다 이제 정말 더 못 보겠구나. 큰일 치를 동안은 참아 넘기려 했지만 정말 더는 못 보겠어. 그래, 삼촌이 지금 무얼 잘못해서 그래. 삼촌이 이 마당에 할머니 이야기를 곱게 써 바친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용순이 너 혼자서 할머니 생각했어? 우리 그저 할머니 고생하고 앓다 가신 거 구경만 하고 있었던 줄 알아?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인제사 말이지만 할머니 치매증은 할머니 혼자서만

[A] 앓으신 병환이 아니셨어. 우리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앓아 왔어.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어. 할머니가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너는 그 할머니께 무엇을 해 드렸지? 너는 할머니한테 그냥 받기만 해 온 거야. 제가 드리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서, 더 받질 못해서 혼자 아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런 패악질이나 일삼는 것이 -, 그것이 네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 드리는 길이야? 그건 철부지들이나 좋아 할 유치한 투정일 뿐이야.”

누구보다 말이 없고 만만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숨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 용순은 처음 한동안 기가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있다가 나중엔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 웃음기 속에 무시하는 태도를 짓고 있었다. 은지네가 다시 그 용순에게 준섭을 대신해 일렀다.

“그 책은 삼촌이 쓰셨지만, 우리가 할머니의 병환을 함께 앓아 온 이야기야. 그러니 너도 이제 심통만 부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 봐. 그래서 우리집 식구들이 할머니의 치매증을 어떻게 함께 앓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곱게 앓고 싶어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를 곱게 보내 드리려 소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 생각처럼 할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해 온 삼촌의 속마음도..... 나는 그동안 할머니에 대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아픈 소망을 이렇게 글에 담아 써 주신 삼촌이 고맙고, 할머니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어. 그걸 읽어 보고 더 투정을 부리든지 행패를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나도 더 아무 말 않을 테니까.”

㉢ “자네가 대신 매를 들어 주니 나는 입을 두고도 할 말이 없네만, 자네도 그렇게 큰소리를 칠 만큼 괴롭이 많았던 줄은 몰랐네이!”

아랫동서가 너무 자신의 뒷감당 노릇을 내세우려 드는 것쯤으로 알았던가. 이번에는 외동댁이 그런 은지네 쪽을 고까워하는 어조로 비양대고 드는 바람에 용순도 은지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시비는 서로 표적이 물고 물린 꼴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다.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 덮어 넘어가 주려는 듯 흥겨운 노랫가락까지 떠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훈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목상을 계속해 나갔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와 함께 지혜가 쌓이게 되고, 지혜가 마음속 가득 찬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혜가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은지를 위해 나이를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시는 것은 모두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키가 작아지고 몸집이 작아져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시는 것도 아랑곳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란다.

㊸ 그 역시 동화 속의 아빠가 딸아이에게 해 준 설명이요 준섭이 실제로 딸아이에게 일러 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딸은 노인이 그 한생애로 준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㊹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의 그런 사랑을 기리고 명념하려 하는가. 물어 보내지 않고 지니고 싶어 하는가.

-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상여꾼들의 취흥과 노랫소리는 이제 그 질탕한 아리랑 가락으로 절정을 이뤄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준섭은 다시 그 동화 속의 딸아이에게 의탁해 보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구를 마음 깊이 혼자 되새겨 나가기 시작했다.

.....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 새 옷 입혀 줘.’

할머니는 이날도 몸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췌근췌근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맑은 정신이 드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갑자기 새 옷을 줄라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다려 입혀 드린 새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옛날처럼 가지런히 몸을 개고 앉아, 이날따라 그 할머니를 위해 찾아온 듯싶은 한 쌍의 흰색배추꽃나비를 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B] 그런데 얼마 뒤, 바깥일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그 할머니의 방엘 들어갔다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켜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혼자 다짐하셨습니다.

‘할머니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 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준섭의 감은 눈 속에서도 그날 은지가 보았다는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 이청준, ‘축제’ -

* 원정 : 원망하는 마음.

* 포원 : 원한을 품음.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용순이 동화책을 빌미로 준섭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② ㉡ : 용순이 은지네의 말에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은지네가 한 말에 대해 외동댁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동화책이 실제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어머니가 보여 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가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단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 ③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이 대신하여 옹호하고 있다.

4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과 같은 표현에서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 이를 싸 덮는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준섭이 ‘장례’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와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과 준섭의 ‘묵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장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애도와 소란스러움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45.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자는 모습은 병들고 약해진 할머니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③ 준섭은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비를 할머니의 영혼과 연결짓고 있다.
-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에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있다.
- ⑤ 할머니가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은지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권
말